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요동치는 암호화폐시장: 시장안전 및 투자자 보호 대책
[발제자]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일 시] 2021년 5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370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 요인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설명한다. 수요 측면으로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고, 기관투자자의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DeFi(탈중앙화금융) 열풍, 급등기 오버슈팅(과도매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채굴 반감기로 인해 채굴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본격적 등장으로 디지털 화폐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법규 등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암호화폐시장을 통신판매업자로 간주하고 있어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상장규정을 제정해서 자금세탁방지, 해킹방지시설 등을 갖춘 거래소를 등록하도록 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금융당국이 엄격히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현재처럼 자금세탁방지나 의심거래 징후 발견 책임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과 유사한 조직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

◆ 비트코인이란?

- ◆ 2009년 1월 비트코인이 출시되었다. 2008년, 리만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주기적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탈중앙화시스템으로 P2P 거래를 개발한 것이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최초의 실물거래는 피자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을 지불한 사건이다. 피자를 주문하고 값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한 2010년 5월 22일을 ‘피자데이’로 기념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피자 2판으로 지불된 1만 비트코인은 2021년 현재 약 1,100억 원의 가치를 갖는다.
- ◆ 17년 말, ICO(Initial Coin Offering) 열풍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했다. 배경에는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한 지급결제수단(법정화폐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의 하나로 가상화폐의 인정, 시카고 상품거래소, 시카고 옵션거래소에서 선물거래 등이 있다. 암호화폐의 금융상품 가능성에 고무되어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 ◆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것은 2017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특히 테슬라, 트위터 등의 기관투자자들이 가세하기 시작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라는 코인을 발행하려다 철회했다. 약 35억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리브라’로 직접 거래를 하게 되면 달러의 기축 화폐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정부규제로 암호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고 대신 지분투자를 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가격 상승 전환점은 작년 3월 17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로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미국의 주가와 암호화폐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 중앙은행의 CBDC와 민간 암호화폐의 공존 전망

- ◆ DeFi(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금융) 열풍이 불고 있다. DeFi는 탈중앙

화된 분산금융을 의미한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일종의 온라인 금융서비스인 예금, 출금, 외환, 보험 등을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화폐로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이더리움(Etherrium)으로 거래해서 이더리움(Etherrium)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 최근 코로나 위기로 언택트 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지급 결제의 안정성과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은행의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 약 80% 내외 중앙은행이 CBDC의 시범운용, 시범준비 또는 연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에는 중앙은행의 CBDC와 민간암호화폐가 공존할 전망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말한다.

◆ 비트코인의 등락

가. 비트코인의 급등

- ◆ 수요와 공급측면으로 비트코인의 급등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수요측면에서는 비트코인 유동성 급증, 기관투자가 진입의 본격화, DeFi(탈중앙화금융) 열풍, 급등기 오버슈팅(과도매수)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의 채굴 반감기로 인해 채굴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까지 암호화폐에 발을 들이면서 디지털화폐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인식도 매수 심리를 자극해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나. 비트코인의 하락

- ◆ 비트코인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규제이다. 최근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하면서 비트코인의 거래와 채굴을 막았다. 이는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기 위한 규제로 보인다. 미국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의혹을 수사 중이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도록 한다고 했다가 이를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백신접종률 증가에 따른 경제 회복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 조짐에 대한 경계감도 영향을 미쳤다. 비트코인 급등에 따라 주요 코인 보유자들의 차익 매물 공급 가능성, 심리적 저항선에 따른 경계 매물도 출하되고 있어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비트코인의 재반등 배경

- ◆ 물가 상승 우려가 다소 진정되면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해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Fed이사는 이날 단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겠지만 이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북미 지역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비트코

인 채굴에 수반되는 막대한 에너지 사용을 표준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북미 비트코인채굴협의회 결성 소식과 이에 대한 머스크의 긍정적인 평가에 급반등했다.

◆ 암호화폐의 전망

- ◆ 악재가 거의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면 2018년 같은 급락은 없을 전망이다. 기관투자자들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큰손을 지칭하는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DeFi(탈중앙화금융) 열풍에 NFT(Non-Fungible Token) 열풍까지 가세해 수요기반이 탄탄할 것이다. 다만 미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아 하반기 이후에는 미국 금리와 유동성 동향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달러의 가치 변동이 중요한 변수이다.

◆ 한국 암호화폐시장 안정화 방안

가. 투자자보호 방안

- ◆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법규 마련 등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통신판매업자로 간주하고 있어 현황과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을 제정하고 자금세탁방지, 해킹방지 시설 등을 갖춘 거래소를 등록하도록 해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거래소의 상장심사는 금융당국이 엄격히 심사하고 감독해야 한다. 상장 심사를 엄격히 하면 스캠코인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자금세탁방지나 의심거래 징후 발견 책임을 은행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정보분석원이나 이와 유사한 조직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시장안정화 방안

- ◆ 암호화폐의 과도한 시세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 상하한선과 일정시간동안 주식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은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혈맥이다. 이를 외면하고는 4차산업혁명의 발전을 기약하기 힘들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